

9월 농식품 해외시장동향 및 전망 [러시아]

□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단위: US백만달러, %)

구분	2012년 1-7월 누계			2012년 7월 당월		2011년 1-7월 누계	
	금액	전년동기 대비(%)	비중(%)	금액	동년전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비중(%)
수입 전체	173,332	104.1%	100%	28,166	111.2%	145.8%	100%
식품 및 농업원료	22,033	87.6%	12.7%	2,953	90.2%	128.9%	15.1%

자료: 연방통계청

□ 주요품목 수입동향

(단위: 천톤, %)

품목	2012년 1-7월 누계		2012년 7월 당월			참조	
	물량	전년동기 대비(%)	물량	전년동월 대비(%)	동년전월 대비(%)	'11.1-7/ '10.1-7	'11.7/ '10.7
신선·냉동육	851	98.9	213	148.3	157.7	111.5	105.8
신선·냉동돈육	480	110.9	154	196.3	2.3배	114.5	123.1
신선·냉동가금육	270	115.9	43.1	117.3	114.9	122.8	77.6
신선·냉동어류	398	106.3	41.8	93.5	120.2	80.5	94.8
우유와 비농축크림	116	103.9	8.8	50.3	54.1	109.8	143.7
우유와 농축크림	78.1	70.9	10.5	72.4	90.9	85.2	82.5
그중: 건조우유	39.1	66.4	7.3	128.7	119	70.4	44.3
버터	51.7	75.4	7.3	141.6	105.9	115.1	81.1
치즈와 커티지치즈	205	87.7	29.2	86.2	81.1	101.1	92.6
신선 혹은 냉장 감자	439	30	34	46.9	26.8	4.0배	2.9배
신선 혹은 냉장 토마토	558	102.9	35.7	88.3	33.4	99.9	123.1
신선 혹은 냉장 양파, 마늘	238	52.5	43.2	81.9	45.8	87.9	110
양배추	147	48.6	7	3.2배	43.1	165.8	29
신선 혹은 냉장 오이류	105	100.4	0.9	78.3	17.5	96.4	107.9
신선 혹은 건조 바나나(플랜틴 포함)	781	100.1	97.5	97.1	100.6	124.4	151.3
신선 혹은 건조 오렌지	323	82.5	18.5	73.9	48.4	134.8	114.1
신선 혹은 건조 귤(맨더린), 클레멘타인, 월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355	107.2	14.3	113.3	88.8	119.5	138.1
신선 포도	112	106.4	20.1	93.7	2.1배	93.2	88.7
신선 사과	792	112.5	50.4	94.4	62.8	90.6	113.2
옥수수	26.3	25	0.6	71.5	118.4	3.4배	2.1배
팜유	299	91.3	29.9	3.1배	97.3	111.5	23.3
해바라기씨유	6.1	7.2	0.6	106.6	30.5	2.6배	4.1
야자(코프라)유, 팜핵유	42.2	74	6	197.1	132	71.3	29.7

혹은 바바수유							
조당	422	18.1	7.4	10.4	4.4	121.5	...

자료: 연방통계청(벨라루시와 카자흐스탄공화국과의 무역지수 합산)

- 비CIS국으로부터의 식품 및 농업원료 수입비중은 전체 수입에서 13.0% 차지(2011년 1-7월 15.1%). 식품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20.3% 감소함. 그중 수입량 감소품목은 신선냉동육(3.4%), 버터(30.2%), 감귤류(7.5%), 차(9.9%), 조당(급감). 수입량 증가품목은 가금육(16.8%), 어류(6.7%), 치즈와 커티지치즈(19.7%), 커피(3.9%), 곡물(34.2%)(그중 보리(50.4%), 옥수수(29.6%) 증가)
- CIS국으로부터의 식품 및 농업원료 수입비중은 전체 수입에서 10.6% 차지(2011년 1-7월 15.1%). 식품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69.5% 감소함. 그중 수입량 감소품목은 응축우유(23.3%), 버터(40.7%), 치즈와 커티지치즈(43.8%)

□ 소비 동향

○ 2011년 분유와 응축우유 소매판매 3% 증가

- 2009-2011년간 분유(건조우유)와 응축우유의 소매판매규모는 성장함. 금액 기준, 2010년에 판매 성장률은 10.4%를 보임. 하지만 2011년에 이 지표는 둔화되었으나, 금액 면에서 200억 루블을 넘어섬
- 분유와 응축우유 소매판매의 지역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보인 곳은 모스크바임. 그 다음으로 튜멘 주 10% 이상, 모스크바 주 약 9%임. 스베르들롭스크 주, 한트-만시스크자치구,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합친 경우, 전체 소매판매규모의 약 15%를 보임
-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높은 품목은 저온살균우유(pasteurized milk)이며 구매자의 72%가 선호함. 이보다 2배 적은 소비자들만 멸균우유(sterilized/long-life milk)를 선호함. 소비자들의 15%가 보일드우유(baked milk) 선호, 소비자들의 13%가 스탠더드우유를 구입함

○ 러시아인 1인당 연간 음료수 및 생수 소비 33.2리터

- 러시아인 1인당 연간 음료수(drinking water) 및 생수(mineral water) 소비는 최근 2년간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2011년 1인당 연간 음료수 및 생수 소비는 전년대비 0.1% 증가한 33.2리터 이상으로 집계됨. 하지만, 이 지표는 음료수·생수 소비강국들보다 현저히 낮은 것임.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는 러시아보다 7.5배 높게 소비하고 있음
- 러시아인들에게 가장 인기 높은 종류는 탄산이 없는 음료수이며 시장의 약 3분의 2를 차지함. 이와 동시에 생수 소비는 안정적인 것이 특징적임. 생수 부문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생수는 주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임
- 러시아시장에서 높은 가격대의 물은 시장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함. 프리미엄급의 물은 거의 대다수 유리병 포장으로 출하되며, 이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여주고 있음. 이에 반해 가격이 저렴한 제품은 주로 플라스틱 페트 포장임. 소비자수요는 점차 가격대가 높은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은 훨씬 더 품질이 높은 물인 것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음

○ 냉동 과일류 및 채소류 판매 약 30% 성장

- 2007-2011년간 러시아에서 냉동 과일류 및 채소류 국내판매는 약 30% 성장함(246천 톤→319천 톤). 2009년에는 냉동 과일류 및 채소류 판매가 전년대비 3% 감소되기도 함
- 경제위기시기에 소득이 줄어들면서 대다수 소비자들은 일차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상품 구입을 거부함. 이외에, 이 시기에는 고가 세그먼트의 냉동 과일류 및 채소류의 수요 감소와 소비자들의 저가품으로의 전환이 두드러짐. 2010-2011년에는 시장 성장이 관찰되며 2011년 판매는 2009년 수준보다 26% 증가함
-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는 품목은 감자 제외한 채소류와 버섯류임. 2007-2011년간 냉동

과실류 및 채소류의 전체 판매규모에서 채소류와 버섯류의 비중은 2009년 57%에서부터 2011년 54% 사이에서 변동함. 판매규모에서 감자 비중은 2010년 23%에서 2011년 26% 사이, 과실류와 베리의 비중은 2009년 19%에서 2010년 24% 사이를 차지함

-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2012-2016년간 냉동 과실류 및 채소류의 판매는 연평균 8%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2016년에는 466천 톤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러시아의 대도시들에서는 시장포화현상이 관찰되고 있음. 향후 냉동 채소류 및 과실류의 시장규모 증가는 지역들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인들이 선호하는 육류는 닭고기

- ‘아미코’ 컨설팅사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에게 가장 주된 육류는 가금육임
- 2005-2011년간 러시아산 쇠고기 생산은 현저히 감소됨. 2005년에는 322천 톤이라는 쇠고기(부산물 포함) 최고 생산을 기록한데 비해 2011년에는 236천 톤 수준에 불과함
- 이에 반해 이 시기 러시아산 돈육 생산은 놀랄만한 플러스 동향을 보임. 2005년에는 330천 톤에 불과하다가 2011년에는 거의 2.5배 증가한 810천 톤에 도달함
- 러시아산 닭고기 생산 역시 2005-2011년간 매우 눈에 띄게 성장함. 2005년에 닭고기 생산규모는 1,359천 톤을 기록했는데 이미 이때에도 닭고기는 러시아에서 매우 인기가 높았음. 2011년경 닭고기 생산규모는 거의 2.2배 성장하여 2,953천 톤이라는 거대한 수치를 기록함

□ 향후 시장 전망

○ 이슈 현안

○ 관세동맹, 관세율 인하

- 8월23일부터 러시아의 WTO 가입과 관련하여 변경된 새로운 수입관세율이 발효됨. 첫 번째 인하 물결은 기존 관세율의 10%만 영향을 미쳤고, 주로 육류제품과 유제품, 채소류와 과실류, 자동차와 연관됨
- 관세동맹국들의 단일관세율 신규개정에서 수입관세율의 90%는 이전 수준을 유지함. 러시아연방은 8월22일에 WTO 156번째 회원국이 되었음.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관세율은 약 11천개 상품군에서 1천개 상품군이 인하됨. 이로 인해 평균관세율은 9.6%에서부터 7.5-7.8%까지 감소됨
- 주로 변경되는 것은 식품임. 무엇보다도 육류와 유제품그룹, 일부 채소류와 과실류임. 쿼터 범주 내에서의 돈육 수입관세율은 기존 15%, 최소 0.25유로/kg에서부터 0%까지 인하될 것임. 쿼터 이외의 돈육 수입은 기존 75%에서 65%까지 인하될 것임. 육류조제품의 수입관세율은 기존 25%, 최소 0.4유로/kg에서 20%, 최소 0.4유로/kg까지 내릴 것임
- 버터 수입관세율은 기존 15%, 최소 0.4유로/kg 대신에 15%, 최소 0.29유로/kg로 인하됨. 과실류 중에서는 사과와 레몬의 수입관세율이 내리며, 채소류 중 토마토와 오이 관세율이 인하됨
- 러시아는 알코올의 금지적 수입관세율을 변경없이 남겨둘 예정이지만, 상당부분의 알코올도수가 높은 음료의 수입관세율은 3년 동안 2유로/L에서 1.5유로/L까지 인하될 것임. 또한 생수, 맥주, 포도주, 샴페인. 베르무트의 수입관세율도 현저히 인하될 것임

(자료: 콤메르산트 신문)

○ 토마토와 오이 수입관세율 8월23일부터 인하

- 러시아의 WTO 가입과 관련하여 8월23일부터 토마토와 오이 수입관세율이 인하됨. 대다수 다른 채소류의 수입관세율은 변경되지 않음
- 유라시아위원회가 승인한 관세동맹의 단일관세율에 따르면, 8월23일이 되는 시기에 즉, 6월1일-9월30일간 토마토 수입관세율은 기존 15%, 최소 0.12유로/kg 대신에 15%, 최소 0.1유로/kg

이 됨

- 1월1일-3월31일간, 4월1일-30일간 토마토 수입관세율은 변경되지 않고 15%, 최소 0.08유로/kg임. 5월1일-14일간 관세율은 15%, 최소 0.12유로/kg에서부터 15%, 최소 0.08유로/kg까지 인하되며, 5월15일-31일간과 6월1일-9월30일간 관세율은 15%, 최소 0.12유로/kg에서부터 15%, 최소 0.1유로/kg까지 인하됨
- 10월1일-30일간 관세율은 변경되지 않으며 15%, 최소 0.12유로/kg임. 11월11일-12월20일간과 12월 21일-31일간 관세율은 유지되어 15%, 최소 0.08유로/kg임
- 8월23일부터 오이 수입관세율은 기존 15%, 최소 0.12유로/kg 대신에 15%, 0.08유로/kg까지 인하됨. 게다가 이는 일 년 내내 유효하게 될 것임. 5월16일-10월31일간과 11월11일-12월31일간 기존 관세율에 따르면, 15%, 최소 0.12유로/kg임
-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에도 감자 수입관세율은 변경되지 않고 5%가 될 것이며, 전분 생산용 감자 수입관세율은 15%임. 양파, 양배추, 당근, 사탕무, 기타 채소류 수입관세율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5%로 책정됨

(자료: 후르츠뉴스)

○ 목재 수출절차 변경

- 러시아의 WTO 가입과 관련하여, 처리되지 않은 동근 재목의 수출절차가 변경됨. 러시아연방정부의 다음 결의를 채택함:
- 2012년 7월 30일자 N779 “관세동맹협정 참가국들 영토의 침엽수 목재들의 개별 종들에 대한 관세쿼터(quota tariff)에 관하여”
- 2012년 7월 21일자 N756 “러시아연방에서부터 관세동맹협정 참가국들 경계 밖으로 반출되는 상품들에 대한 수출관세율 승인에 관하여, 그리고 러시아연방정부의 일부 법규들의 효력상실 인정에 관하여”

(자료: 키로프 주정부)

○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시 검역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 우크라이나에서는 곡물 수출 시에 검역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됨. 우크라이나 국가식물검역감독국 관계자의 지적에 따르면, “수출 시에 곡물류는 수출용 식물위생증명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고,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실을 경우에 발급되는 재수출용 식물위생증명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식물위생증명서 수령 신청서는 화물 운송일 14일 전에 신청하며, 왜냐하면 식물위생관리절차 그 자체가 약 5일간 지속되기 때문임. 증명서 작성 자체는 3일에서 5일까지 걸림
- 식물위생증명서 발급이 거부되는 원인 중 가장 잦은 경우는 곡물 로트에서 해충이 발견될 시에 수출자가 해당 곡물 로트의 소독처리 시행을 원하지 않는데 있으며, 그 이유는 소독처리 서비스가 유료이기 때문임
- 수출용 곡물에서 해충이 발견될 시에 다음 경우들에서 다소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 즉, 해당 해충은 우크라이나에서 검역해충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이나, 이와 동시에 수입국은 그와 같은 경우에도 검역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 왜냐하면 수입국에서는 발견된 해충이 검역해충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임

(자료: 아그로 전망)

○ 러시아소비자권리보호감독국, 유전자변형옥수수 반입 금지

- 러시아연방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국(Rospotrebnadzor)은 이탈리아와 프랑스 학자들이 실시한 유전자변형옥수수가 실험실 쥐의 건강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자료들이 출판된 이후에 유

전자변형옥수수 NK603의 러시아 반입을 한시적으로 중지시켰다는 성명을 발표함

- 성명에 따르면, ‘식품 및 화학물질의 독성(Food and Safety Toxicology)’이라는 잡지에 제초제 ‘Roundup’과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유전자변형옥수수에 관한 장기적인 독성연구결과가 기록되어 있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학자들의 학술논문이 출판되었음
- 이 학술논문에서는 “유전자변형옥수수 NK603이 실험실 쥐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과학적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고, 관련 문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받기 전까지 유전자변형옥수수 NK603의 러시아연방영토로의 반입과 러시아연방영토에서의 판매가 한시적으로 중지된다”고 당국은 밝힘
- 당국은 유럽학자들이 내린 결론의 정확성을 심의해달라는 문의서를 러시아의학아카데미 영양학 연구소에 보냈음. 이외에도, 상황 설명과 이 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을 밝히려는 요청서를 유럽위원회 소비자보호보건이사국 국장 앞으로 송부함

(자료: 리아 노보스찌)

□ 러시아 주스 시장동향

○ 생산

- 자국산 주스제품 비중은 98%까지에 이르며, 주스 수입은 약 2%에 불과함. 따라서 러시아 주스제품시장은 거의 완전히 자체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 사실을 감안할 시에 시장규모 지표는 생산지표와 거의 동일하다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스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농축액)는 주로 수입산이며 왜냐하면 수많은 과실류가 러시아영토에서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임
- 러시아주스생산자협회의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주스생산규모는 2011년 결산 시에 1.8% 증가하였고 2010년 2,957십억 리터에서 3,011십억 리터까지 성장함
-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 주스시장은 향후 그리 높지 않은 템포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2015년간 3-6%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공식통계로는 러시아주스제품시장은 3.3십억 리터 수준으로 평가되며, 게다가 2010년 비교 시에 생산은 5.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어 상기 수치와 차이를 보임
- 러시아에서 주스제품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보이는 것은 넥타(50%)이며, 그 다음 주스(40%), 주스함유음료(8%), 모르스(2%) 순을 보임

○ 유통

- 구매자들에게 가장 풍부한 주스 선택 폭을 제공하는 회사는 개방주식회사 ‘VBD-프로덕트 피타니야’(펍시코), 개방주식회사 ‘레베단스키’(펍시코), 폐쇄주식회사 ‘물톤’(코카-콜라), 유한책임회사 ‘니단 소키’(코카-콜라)임. 상기 회사들의 제품은 대부분 모스크바와 모스크바 주에 위치한 유통체인점들에서 판매되고 있음
- 폭넓은 종류의 주스, 넥타, 음료, 모르스는 모스크바와 모스크바 주의 대형 하이퍼마켓들에서 제공되고 있음. 이곳에서는 자국산 제품 이외에 해외업체들의 주스와 음료를 구입 가능함. CIS국가들 중에서 주요 주스 공급국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며 주로 석류주스와 블랙베리주스임
- 작은 규모의 식품상점들과 키오스크에서는 선택의 폭이 좁으며, 주로 ‘류비미 사드’, ‘도브리’, ‘프록토비 사드’, ‘J7’, ‘토누스’, ‘마야 시미야’와 같은 상표가 판매됨. 드물게 ‘산탈’, ‘리치’, 카프리스’ 등이 판매되기도 함
- 닐슨 자료에 따르면, 생산규모 면에서 시장의 중심업체는 펍시코(‘레베단스키’, ‘빔-빌-단’), 코카-콜라(‘물톤’, ‘니단 소키’), ‘사디 프리도니야’, ‘인테르아그로시스템’, ‘산프루트’가 있음. 게다가 펍시코와 코카-콜라사는 물량 기준 시장의 71%를 차지하고 있음
- 주스시장에서는 생산자에게 속해있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소매체인점들에게 속해있는 자체상표(private label)도 활발히 발전하고 있음. 거의 모든 대형식품유통체인점들은 자체상표의 주스를 판매하고 있음

○ 소비

- 러시아주스생산자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상점에서 주스 선택 시에 첫 번째로 생산자(브랜드), 성분, 포장을 주목함
- 가족구성원 수도 소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대가족일수록 주스제품 소비가 더 활발함. 이 외에서 16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가 없는 가족보다 더 자주 주스를 구매함
- ‘콤콘’의 자료에 따르면, 연령별로 가장 적극적인 주스 소비자는 10세-15세의 청소년들이며 가장 적극적이지 않은 소비자는 55세 이상의 노인들임(노인들은 주로 돈에 제약이 따르며 주스를 일상적 소비제품으로 생각하지 않음). 가장 대중적인 주스제품 소비자그룹은 25-45세의 남성과 여성, 4-11세 연령의 어린이가 있는 가족임
- 맛 선호도에 있어서, 수년간 가장 인기 높은 맛은 오렌지(응답자의 52%)와 사과(51%) 주스임. 그 다음 멀티과일맛 주스(39.7%)를 꼽을 수 있음. 수년간 안정적으로 선두를 지키는 오렌지주스와 사과주스는 향후에도 오랫동안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인기 높을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러시아에서 주스제품 소비는 1인당 약 20리터로 집계됨. 2000년 지표와 비교 시에 4배가량 소비가 증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의 경우 연간 1인당 30-50리터 수준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러시아주스시장은 향후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직 선진국들의 소비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임
- 2011년 러시아 주스제품 소비구조에서 1인당 벡타 소비는 약 12리터, 주스 6리터, 주스함유음료 2리터 소비함

○ 수입

√ 주스농축액의 수입비중 평균 58%

- 러시아의 산업용 주스농축액 시장은 수입의존이 높음. 현재 수입산 농축주스는 러시아 내에서 주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의 토대임. 수입품의 규모는 자국산 산업용 주스농축액 생산의 약 2배를 넘어서고 있음
-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2007-2011년간 수입산 산업용 주스농축액의 대러 공급비중은 전체 공급규모에서 평균 58%를 기록함. 주요 공급국은 중국, 브라질, 우크라이나이며, 2011년에 전체 수입규모에서 이들 세 국가의 비중은 60.7%를 차지함. 2011년 산업용 주스농축액 수입규모는 159.4백만 리터로 집계됨. 중국산은 주로 사과주스 농축액이며, 전 세계 사과수확의 약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수확되고 있음. 우크라이나 역시 대러 사과주스 농축액 주요 공급자 중의 하나임. 브라질은 러시아시장에 오렌지주스 농축액을 공급하고 있음
- 러시아로 수입되는 산업용 주스농축액 종류는 주로 사과주스 농축액임. 2007-2011년간 사과주스 농축액의 평균비중은 44.3%로 집계됨. 사과주스 농축액이 다른 종류보다 우세한 이유는 사과주스가 러시아 구매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기 때문임. 2007-2011년간 물량 기준 판매규모에서 사과주스 비중은 평균 33.2%임

○ 시사점

- 러시아 자국주스시장은 포화에 가까워져 가고 있으며 향후 그리 높지 않은 템포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2012-2015년간 3-6% 수준)
-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주스함유음료 부문이 큰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그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지역들에서의 주스 소비증가로 인해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과 주스농축액 가격인상이 관찰될 것으로 예상됨. 가격 기준, 시장 성장을 보장해줄 수 있는 주요 부문들 중의 하나는 100% 내추럴주스가 될 것임